

경찰-강진군 '이상한 전쟁' ... 지역사회 '시끌'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 사건 신경전

광주경찰과 강진군이 강진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사건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접임가경이다. 처음에는 수사 착수 자체를 놓고 겨루더니 이제는 강압·위법 수사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찰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수사라, 관련자 처벌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진군은 위법·표적 수사인 만큼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건 개요=강진군은 2009년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장학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강진군은 "감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내사에 착수한 전남지방경찰청도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초 이례적으로 3차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달 22일 기부금품 불법 모금 및 권 남용 혐의로 황주홍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군 6급 이상 승진자 61명 중 52명이 1억1288만원을 기부했고, 강진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도 14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접

보를 입수한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초 별도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24일 1차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 두차례 압수수색
표적·강압 수사 '진실 공방'
보도자료·해명자료 맞붙에
정치 배후설까지 '접임가경'

그러나 강진군은 "승진자들이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낸 것인데, 감사원 감사 세 번과 경찰 압수수색 두 번은 명백한 표적 감사·수사"라며 "꼬투리를 잡기 위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어 2차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치열한 공방=양측은 표적 수사 여부를

논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황 군수가 지난 21일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보도자료를 내자 경찰은 수사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정치 세력과 결탁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황 군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였다.

이에 황 군수가 22일 경찰이 위법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언론에 싣고 전남 경찰이 배포한 해명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자, 경찰도 곧바로 "적당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진군의 신문공고는 수사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경찰은 또 "한 점의 의혹 없이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언론 광고 건에 대해서도 수사 종결 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다.

◇정치 배후설?=이번 수사와 관련, 일부에서는 황 군수의 정치 행보를 의식해 그를 흠집 내려는 세력이 감사원·경찰에 거짓 소문을 흘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선으로 더 이상 지자체장 선거에 나설 수 없는 황 군수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



강진군 변영회원 50여명이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기 위해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진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16일 '강진 장학재단 감사·수사관련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역 정치세력이 감사원에 청탁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압력은 넣은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세 차례나 감사를 한 것은 감사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경찰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고,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 장학재단=황주홍 군수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강진군민 장학재단은 2005년 4월 8일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설립됐다. 지난달 31일 현재 장학금 조성금액은 200억원이며, 남은 금액은 112억원이다.

나원침 (8274) 김장두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피하다 순찰차 '깡'

술을 마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신호위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광주서부경찰청은 22일 신호를 위반한 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민도(28)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전동 한 도로에서 서부서 삼부지구대 소속 이모(30) 경위와 김모(36) 순경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와 경찰관 2명은 다행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이날 새벽 4시15분께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위반한 뒤 그대로 도주, 자신을 뒤쫓던 이 경위 등이 탄 순찰차가 맞은 편 차선에 정차하자 유턴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흥천 원단으로 옷 만들어 판 재단사
O-자신이 일하는 의류 제조공장에서 흥천 원단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 판매한 40대 재단사가 경찰서형.

O-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청의 의류 제조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는 안모(42)씨는 지난해 12월께 이 공장에 몰래 들어가 원단 100야드(약 91m)를 훔치는 등 지난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의 원단을 빼돌렸다는 것.

O-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흥천 원단을 또 다른 의류 제조공장에 맡겨 조개를 제작한 뒤 총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교사 순위' 실명 공개 파문

광주시교육감 홈페이지에 ... 해당 학교·교사들 허탈

"무분별 비난 막게 교육감 홈페이지 실명제 전환을"

광주 한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잘 가르치는 순위'를 매기고 실명을 공개한 글이 광주시교육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회국 교육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S고 이과 3학년 선생님 잘 가르치는 순위(이과 기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비실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해당 학교는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재학생이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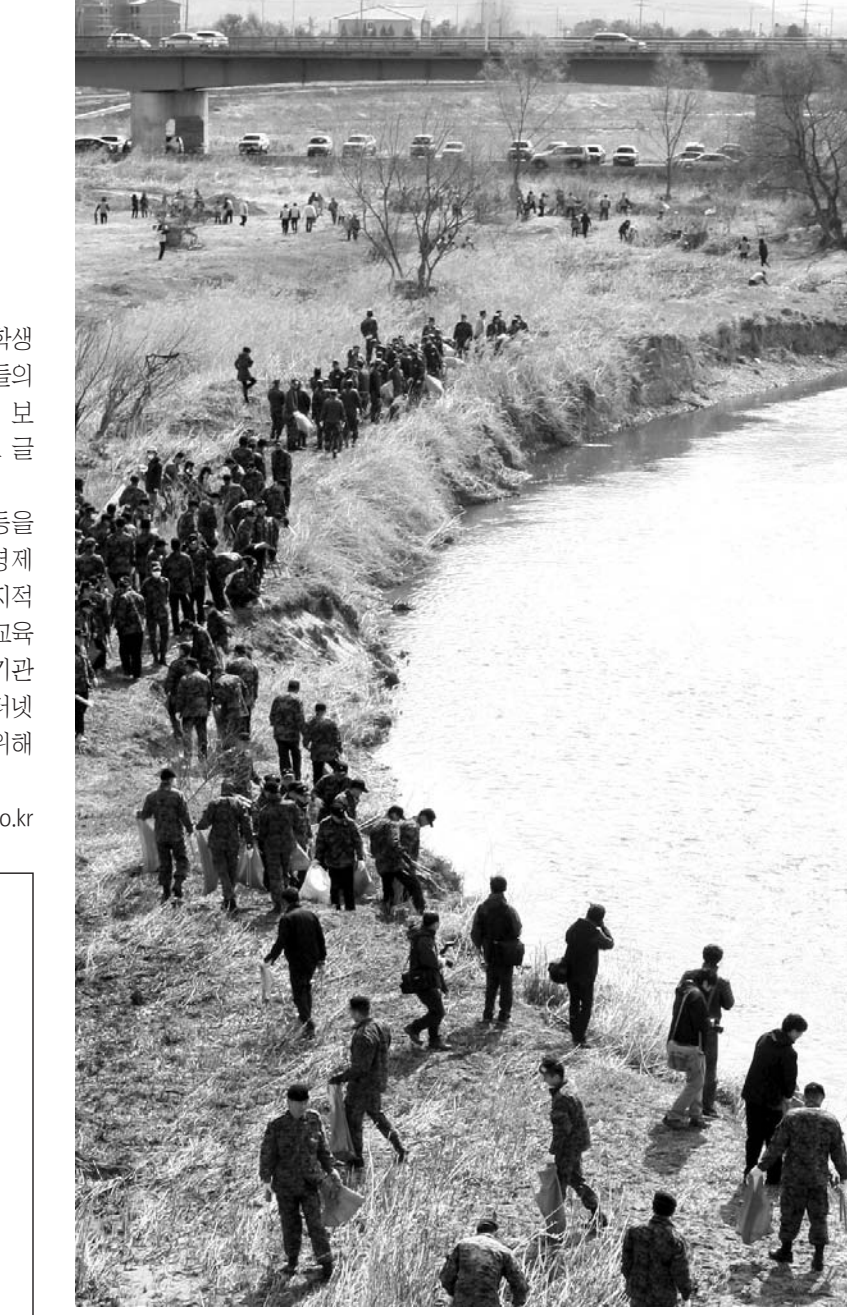
이 글에는 뚜렷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해당 학교에서 3학년 교과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실명과 순위가 1위부터 13위까지 게재됐다. 교육청은 이 글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물론 교사들은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지도에 잘못된 학교의 책임도 크지만 학생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보기에 지난해 감이 있다"며 "선생님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같은 게시판에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아무리 악명이 보장된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을 올렸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비방글 등을 막기 위해 교육감 홈페이지 실명제 전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장회국 교육감의 개인 홈페이지는 일반 공공기관 상의 표현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물의 날' 천변 환경 정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광산구 청·육군 제31사단 장병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22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1교 천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살 막아라" GPS 동원 극적 구조

목표경찰 정세화 경사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한 20대가 한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무사히 구조됐다.

22일 목표경찰에 따르면 산정파 출소 소속 정세화(38) 경사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목포시 상동 문화예술회관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을 기도한 안모(24)씨를 구조했다.

정 경사가 안씨를 찾아 나선 것은 이날 새벽 2시50분께, 광주남부경찰이 "자살 의심자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목포로 확인됐다"는 신고를 접한 것이다. 정 경사는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안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바람에 안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 경사는 3차례에 걸친 119위추적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중 안씨가 탄 렌터카 차량에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냈다. 곧바로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건 정 경사는 안씨가 상동의 바닷가에 있음을 확인하고,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안씨를 구조했다.

한편, 구조 당시 안씨는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은 채 자살을 기도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되찾았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새총 썩 시내버스 파손 전북고속 노조원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새총을 쏘 버스회사 유리창을 깨 혐의(재물손괴)로 전북고속 소속 민주노동조합 노조원 박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월 12일 전주공설운동장 앞에서 열린 버스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전주 시청 광장까지 행진하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께 금암동 전북고속 사무실에 새총으로 유리구슬을 쏘 유리창 너장을 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도 파업을 벌이며 비조할원의 버스 엔진오일 주입구에 이물질을 넣어 엔진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전북 모 시외버스회사 조합원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영암 경찰 간부 목매 숨겨

22일 오전 7시40분께 영암군 모 치안센터 숙직실에서 A(48) 경위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동료 경찰관은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확인 좀 해달라"는 A경위 아내의 부탁을 받고 치안센터로 가봤더니 숨겨 있었다"고 말했다.

숙직실에는 A경위가 동료와 아내, 자녀 등에게 쓴 유서가 발견됐다.

/중부취재본부=이상수기자 lsh@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숙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망강사진 총출결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역, 관리, 행정, 행정, 관리, 헌법, 화해, 경찰, 교정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숙원 소망직 (전문) 시정당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